이프-댄만 알던 코딩 초짜의 딥시크 활용 코딩 도전기 – 챗GPT와의 비교 검증 기반

# 요약(Abstract)

본 논문은 조건문(If-Then)만 알던 비전문가(코딩 초짜)가 ‘딥시크(DeepSeek)’ 언어 모델을 활용해 실질적인 코딩 작업을 시도한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. 특히 챗GPT와의 비교 및 상호 검증 과정을 통해, 두 시스템 간의 특성과 사용자 친화성, 오류 탐지 능력, 코드 해석 방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. 궁극적으로는 AI 코딩 어시스턴트를 활용한 개인 개발의 가능성과 한계를 모색하고자 한다.

# 1. 서론(Introduction)

개인의 창의성과 AI 기반 코딩 보조 도구의 결합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새로운 장을 연다. 본 논문은 프로그래밍 경험이 전무한 필자가 단지 ‘If-Then’ 문법만 알고도 AI의 도움으로 프로그램을 구현해 낼 수 있었던 여정을 다룬다. 사용된 도구는 딥시크(DeepSeek)와 챗GPT 두 가지이며, 각 모델의 피드백을 비교 분석하여 개인 개발자의 실용적 가능성을 모색하였다.

# 2. 실험 배경 및 환경

- 개발 대상: 간단한 웹 인터페이스 및 계산기 기능 포함

- 사용 모델: DeepSeek Code (2024), ChatGPT 4.0

- 테스트 기간: 2025년 6월

- 사용 언어: Python, JavaScript (기초 수준)

# 3. 개발 흐름 및 피드백 비교

| 단계 | 딥시크 활용 | 챗GPT 활용 |
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
| 기획 | 코드 구조 이해 어려움 | 핵심 기능 중심 구조 추천 |

| 코드 작성 | 조건문 중심, 변수 선언 오류 다발 | 문법 수정 및 예외처리 적극 제안 |

| 디버깅 | 설명 부족, 질문 유도형 반응 | 사전 오류 탐지 및 복구 코드 제공 |

| 개선안 | 다소 단편적 수정 | 사용자 습관에 맞춘 구조 개선 |

# 4. 실제 예시 비교: 조건문 코드

4.1 딥시크 제공 코드:

```python

score = input("Enter score: ")

if score > 90:

print("Excellent")

```

→ 실행 오류: TypeError, 문자열을 비교함.

4.2 챗GPT 제공 코드 및 설명:

```python

score = int(input("Enter score: "))

if score > 90:

print("Excellent")

else:

print("Keep trying!")

```

→ GPT 설명: score 변수는 문자열로 입력되므로 int()로 감싸야 수 비교가 가능합니다. 또한 else 문을 통해 기본 피드백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.

# 5. 주요 관찰 사항

- 딥시크는 코딩을 “보여주는” 데 강점이 있음 (빠른 생성)

- 챗GPT는 설명, 문맥 파악, 수정 유도 등에서 강함

- 초보자에게는 GPT가 학습 도우미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

- 딥시크는 목적형(예: 코드 변환)에는 강하지만, 대화형 피드백은 약함

# 6. 요약 및 결론

딥시크는 빠른 결과를 원하는 사용자에게 유리하며, 코딩 문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중급자에게 효율적이다. 반면 챗GPT는 초보자의 사고 흐름에 맞추어 코드를 구성하고 설명하는 데 탁월하다. 각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병행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.

# 7. 향후 연구 방향

- GPT와 DeepSeek의 실시간 협업 방식 설계

- 사용자 오류 패턴 기반 추천 알고리즘 개선

- 비전문가 대상 ‘코딩+AI 보조’ 커리큘럼 개발 및 테스트